개인하수시설 규제 강화 '흐지부지' 되나

도, 하수시설 소유자에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화 부여
구인난·비용 부담에 현장 반발하자 '2025년 시행' 중단
도의회 '2년 유예' 개정안 발의… 전문인력 양성도 난제

제주지역 지하수 보호 목적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규제 강화 조치가 또다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1일 처리 용량이 20㎥ 이상~50㎥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하수 조례를 지난 2023년 개정해 공포했다. 기술관리인은 하수처리시설이 수질 기준에 맞게 하수를 정화해 방류하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 하수도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 용량이 5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기술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도내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약 450개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강화된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2개월 만에 중단했다.

소규모 시설 소유자들이 기술관리인을 구하기 힘들고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술관리인 선임 비용은 시설 처리용량에 따라 다르며 하루 20㎥일 경우 매달 2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하수도법 상 기술관리인은 화공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이공계 전문대를 졸업하고 1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로 못박고 있지만 도내에는 이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인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기술관리인 의무 선임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다시 유예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여전히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올해 초 1년 더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하수도본부 계획보다 더 긴 2년 유예 연장으로 10일 개회하는 제2차 도의회 정례회 기간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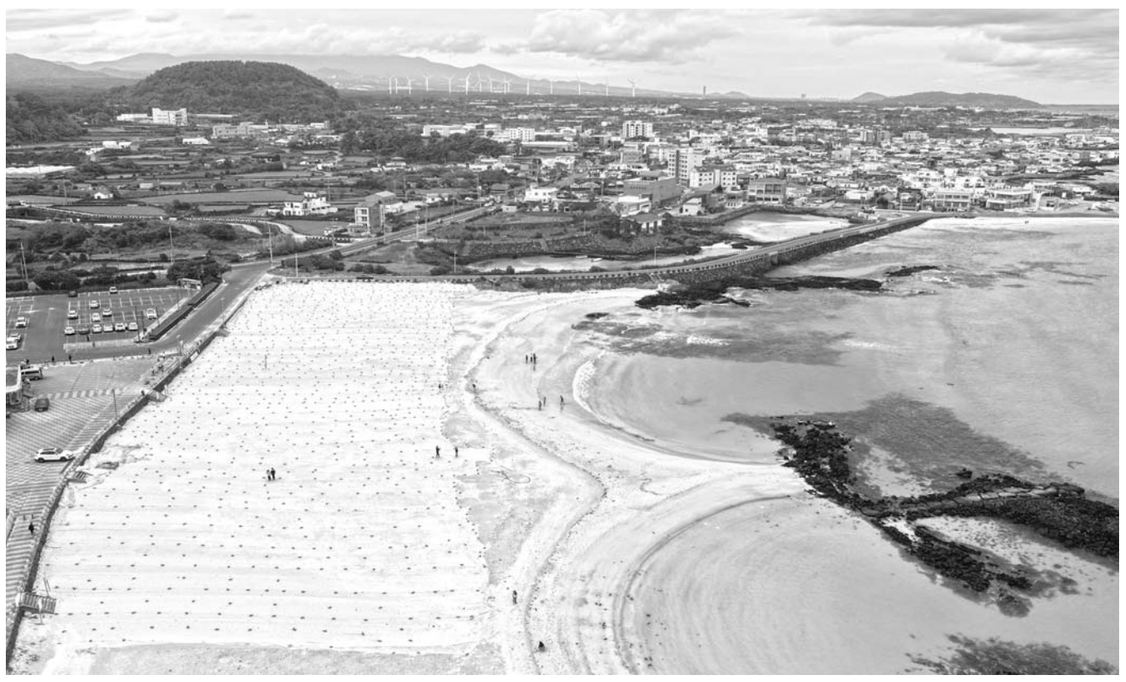
문제는 도내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관리인이 없는 상황이 시간이 흐른다고 개선될 수 없다는데 있다.

제주도는 대안으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일정 시간 이수하거나 학위가 없어도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자를 기술관리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상위법인 하수도법이나 제주의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등 둘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하수도법에 규정된 정부 권한 대다수를 제주도가 넘겨 받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정부 심의와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제주도가 조례로도 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소중한 모래를 지키자" 8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 강풍으로 인한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대형 비닐막이 설치 돼 있다. 연합뉴스

도, 마을어장 4곳에 해조류 블록 1359개 설치

사계·대포·하귀1리·판포

제주특별자치도는 갯녹음 등으로 생태적 기능이 저하된 마을어장을 복원하기 위해 사계·대포·하귀1리·판포 등 4개 해역에 해조류가 자랄 블록 1359개를 설치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8억원을 투입해 해역별 여건과 해녀 조업어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비재를 첨가한 블록을 설치했으며 11월 중 블록에 참모자반·청각 등 해녀가 채취할 수 있는 해조류를 이식할 예정이다.

11월 이식은 해조류의 생육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참모자반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어린 개체가 자라 이듬해 봄 성숙한다.

제주도는 해역별 수온과 해조류의 상태를 살피며 이식하고, 이후에도 정착과 생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해조류 종자가 붙은 씨줄을 블록에 감아 고정하는 방식으로 군락 형성을 촉진하고, 바다 바닥에 사는 저서생물의 서식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큰열매모자반 등의 모조주머니도 추가로 설치해 자연 번식을 유도한다. 수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조류의 종류와 조성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 내달 재개방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해 6월부터 출입 통제

안전 문제로 1년 넘게 출입이 통제된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이 재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하늘연못 재개방 계획이 참석 위원 만장 일치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운영위는 재개방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관람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주문하는 한편, 입장 입원과 운영 시간 조정,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리소 측은 오는 12월 하늘연못 시범 개방을 목표로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인 재개방 일정과 운영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늘연못은 제주돌문화공원 옥상에 있는 지름 40m, 둘레 125m 규모의 원형 수상 무대다. 설문대할망 신화 속의 '죽솥'과 '물장오리' 한라산 백록담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맑은 날에는 연못 수면에 파란 하늘이 비치고 주변 풍광과 잘 어우러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시설 정비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재개방 논의는 올해 9월 제주도의회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하늘연못 통제 이유가 안전 문제가 아닌 특정인에 의해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한 의원은 "하늘연못이 '신성한 구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성한 곳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며 재개방을 요구했다.

이후 관리소 측은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관람객 1464명이 참여한 설문에서는 적극 찬성이 52.9%(774명), 조건부 찬성 29.3%(429명) 등 재개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시 내년 중문·삼매봉공원 도시숲 조성

55억 투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91% 완료

서귀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가운데 91%가량을 매입, 단계별 공원 조성에 나서고 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토지 매입과 단계별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일상 속 녹색쉼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도시공원 74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400억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매입 대상 면적 약 106만㎡ 가운데 현재까지 91%가량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토지 매입을 마친 공원 부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시흥공원, 엉또공원 등에 도시 바람길숲(24억원), 기후대응 도시숲(94억원), 생태축 복원사업(60억) 등 다양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폭염과 도시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쿨링포그와 근로자 쉼터 시설을 6개 공원에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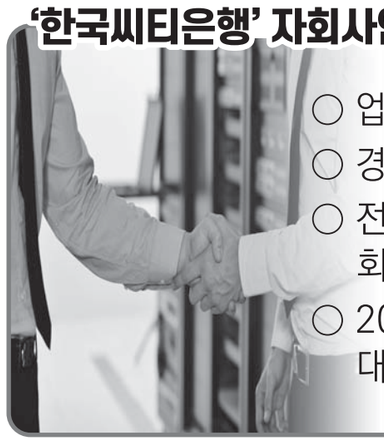
시는 내년에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중문공원(2.5ha)과 삼매봉공원(3.0ha) 등을 중심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기존 수목과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 식재와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공원별 입지와 이용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녹색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大賞